



남원시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

남원시는 30일 춘향문화예술관에서 남원시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남원시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협회 주관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어르신들의 돌봄을 묵묵히 수행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일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허인선 복지행정국장, 시의회 김영태 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 △모범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창 수여 △레크리에이션 및 초대 가수 축하 무대가 진행되었다.

권혜정 통합돌봄과장은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지역 돌봄 발전에 기여한 요양보호사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돌봄의 가치와 보람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며, 함께 돌보고 함께 피어내는 따뜻한 남원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마이산휴게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은상 수상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전북 진안군에 위치한 진안마이산(장수방향)휴게소 화장실이 행정안전부와 화장실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제27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에서 은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은 쾌적하고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내 대표 경연이다.

이번에 수상의 영예를 안은 진안마이산(장수방향)휴게소 화장실은 올해 리모델링을 통해 청결·편의·디자인을 모두 갖춘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 노암동, 독거 어르신 대상 생일 축하 행사

남원시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의 특별한 하루를 축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수사례 '노암동이 파티플래너가 되어드립니다'라는 사업을 통해 올해 총 10명의 부양의 무자가 없는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일 축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노암동 직원들이 직접 생일 축하 케이크와 함께 미역국, 찹쌀 및 세제 등 생활용품들을 선물하며, 축하 사진을 액자에 담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서 제40회 황산대첩 현화식 거행

남원시 운봉읍에서는 30일 제40회 황산대첩 현화식이 열렸다.

운봉읍의 황산대첩비지(운봉읍 비전마을)는 조선실승지(十勝地)의 하나로, 황산대첩은 고려 4대 대첩 중 하나로, 고려 말 우왕 6년(1380) 태조 이성계가 장군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황산에서 왜장 아지발도의 왜군 20만 명을 격파한 전투로,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날 현화식에는 △이성계 전주이씨 분원장 △산동열 운봉에향회 회장 △이정진 전라북도의원 △윤지흥·소태수 남원시의회 등 기관·단체장 약 30여 명이 참석해, 호국영신을 되새기며 묵념과 헌화를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재해 · 무사고 기원... 안전기원제

포스코이앤씨, 전주 기자촌 주택 재개발 현장... 노승곤조합장 등 100여명 참석

일선 건설현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무재해 제로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이앤씨 전주기자촌주택재개발현장과 재개발 조합은 물론 전직원이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동치고 나섰다.

29일 오후 4시 전주기자촌주택재개발현장에서는 재개발비사업조합 노승곤조합장과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구분용다장, 포스코이앤씨 현장 1단지 최진영소장, 2단지 박세근 소장 및 협력사 직원을 비롯한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기원제를 지내고 무재해와 무사고를 기원,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기원제에서는 최근 일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안전감시요원을 대폭 증원 배치하는 한편 안전시스템을 풀가동해 민원의 사태에 강력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소장이 직접 노동현장에 참여해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대해 눈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하면서



설치한 CCTV를 최대한 활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결의했다.

노승곤조합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고 말했다. 최진영 현장소장은 “일선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감시요원 및 CCTV를 활용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이숙자 남원시의원,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권자 정책 제안 및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숙자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시상은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 중 지방자치 발전, 지역균형발전, 시민 체감형 정책 및 입법 활동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사)한국유권자총합회가 주관하고 심사에서는 △입법·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활동 △지역 현안 해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했으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함께한 정책결실 인정 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이숙자 의원은 제때 남원시의회 후반기 경제농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곳곳의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현장형 의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자신 혼자만의 결과가 아닌 남원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은 지역사랑봉사단, 금암노인복지관에 성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30일 전북은행 본점 1층에서 금암노인복지관(관장 최재훈)에 지역사랑성금 4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지역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자아 실현을 돕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조성한 지역사랑성금을 통해 지난 4월 총 6,000만 원 규모의 '지역사랑성금 지원사업'을 공모했으며, 현재 15개 기관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기부금 전달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금암노인복지관의 청춘의 꿈 AI로 만나는 내 삶의 이야기 사업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서전 제작 프로그램이다. 복지관은 전주시 거주 어르신 13명을 대상으로 ChatGPT 등 AI 활용 교육과 글쓰기, 원고 교정 과정을 진행해 어르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록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서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후원금 전달식과 함께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최재훈 관장, 정원호 전북은행동조합 위원장, 노조 간부,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 및 가족 등 4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격려와 박수를 보냈다.

정원호 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꿈과 열정을 함께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비전대 미용건강과, 뷰티테라피 경진대회 전원 수상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 미용건강과가 최근 열린 '2025 대한민국 시데스코 뷰티테라피 온라인 기능경진대회'에서 참가 학생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와 CIDESCO(시데스코) 한국지부가 공동 주최·주관한 국내 최고 권위의 미용 기능경진대회로, 전국의 미용 관련 전공 학생들이 참가해 국제 기준의 뷰티테라피 실무 역량을 겨뤘다.

30일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신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RISE) 지역산업맞춤형 코스타라피 과정'의 일환으로 하계 후반기 부문에서 이현아 학생이 국제 CIDESCO위원회 회장상(1위)을 받았다.

이 외에도 국제 CIDESCO 한국지부 회장상, 중앙회장상 등 금상 7개, 은상 1개, 테크닉상 5개 등 전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베트남 유학생 4명도 전원 수상하며 K-뷰티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은영 지도교수(피부미용 전공)는 “학생들이 학업과 실습을 병행하며 보여준 열정이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산업계에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우석대 이고운 학생, '젊은 과학자상' 받아

우석대학교 이고운(한약학과 4년) 학생이 국제 과학 침술·의학 심포지엄 ISAMS 2025에서 젊은 과학자상(Young Scientist Award)을 받았다.

30일 우석대에 따르면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고운 학생은 김미혜(한의예과) 교수의 지도를 받아 '한의학 임상진료지침 기반 네트워크 클러스터 분석 및 동물실험을 통한 다상상난소증후군 치료 한약 발굴'이라는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가임기 여성의 대표적 난임 원인인 다상상난소증후군(PCOS)의 치료를 위해 한의학 임상진료지침에 수록된 18개 처방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온포종육탕'을 핵심 처방으로 '당귀(Angelica gigas Nakai)'를 핵심 한약재로 도출했다.



특히 도출된 핵심 약재인 당귀가 다상상난소증후군 동물 모델에서 실제로 배란 주기를 회복시키고 난포성 난포의 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등 난소의 구조적·기능적 개선 효과가 있음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이 연구는 전통 한의학 처방 데이터를 현대적인 네트워크 약리학 기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동물실험으로 검증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통해 한약의 난임 치료 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고운 학생은 “환경과 식습관의 변화로 현대인의 체질이 과거와 다르다”며 “과거 한의학 기록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네트워크 분석과 AI 기술로 재해석해, 현대인에게 적합한 한약 처방과 구성을 연구에 나가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호남의병 창의동맹단 결성 제118주년 기념 호국제전 추모제 거행

호남의병 창의동맹단 결성 제118주년을 기념하는 호국제전 추모제가 30일 진안군 마이산 남부 호남창의동맹단 의병 위령비 앞에서 엄숙히 거행됐다.

이날 행사는 호남의병창의호국제전위원회(위원장 박주홍)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전준성 진안군수, 이투라 군부위장과 군의원, 전용태 도의원, 신경순 전북동부호국지정장을 비롯한 제전위원회 회원, 군부대 장병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추모식에는 정재 이석용 의병장의 후손인 이정 하씨와 최규영씨가 함께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호남의병 정신 계승의 뜻을 다했다.

추모제는 동맹부사 낭독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헌화, 추모사, 제35사단 군악대 연주 순으로 진행됐으며, 일제에 맞서 항거한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음력 9월 12일에 개최되고 있다.

호남의병 창의동맹단은 1907년 9월 12일 정재 이석용 의병장을 중심으로 진안 임실 순창 장수 남원 등지의 1,000



여명의 의병이 진안 마이산 남부 용암에 집결해 일제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의병조직 동맹 결성을 결의한 데서 시작됐다. 이는 호남 최초의 의병활동으로 이후 1909년까지 진안과 장수, 임실, 전주 등지에서 활기차게 항일 투쟁을 이어가며 민족의 자주성과 의로운 기상을 떨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청정바다젓갈 안병관 대표,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

'청정바다젓갈' 안병관 대표가 30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청정바다젓갈'은 부안군 곰소항에서 각종 젓갈류와 건어물을 판매하는 업체로, 2016년부터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에 새우젓을 납품해 오고 있다. 이를 계기로 2023년부터 매년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2023년 1백만 원, 2024년 1백만 원)해 왔다.

안병관 대표는 “그동안 무주에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올해는 '고향사랑 무주사랑'의 마음을 배로 키워다”라며 “무주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만큼, 작은 힘이나마 늘 보탬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교대, 학생중심성장 리더특강 개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29일 법정에서 만난 역사이야기라는 주제로 학생중심성장 리더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법인 해마투의 임재성 변호사를 초청해 △일제 시기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사건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와 정의, 법의 개념과 구조, 그리고 역사와 법의 상호작용을 심도 있게 다뤘다.

이번 특강은 법정에서 찾을 수 있는 역사의 맥락을 한눈에 짚어보고, 이를 통해 올바른 역사관과 비판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박병춘 총장은 “리더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미래를 책임질 예비교사로서 인문적 교양과 도덕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